



해남군과 전남도는 최근 이틀간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소국'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 '해남 마한소국' 미스터리 풀릴까

국제학술대회 이틀간 열려

호남 최대규모 자원 보유 주목

지역 역사가치·위상 집중 조명

해남반도의 마한사를 집중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과 전남도는 최근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소국'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이틀간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마한 문화권 내 최대 고분군인 해남 읍호리 고분군에 대한 학술 가치를 평가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등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해남지역의 마한사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해남반도 전역에 분포해 있는 선사·고대를 대표하는 유적들에 대한 유적현황과 학술적 가치를 되짚어 보고, 마한사의 최대 미스

터리로 꼽히고 있는 '해남 신마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집중 분석해 마한역사문화권에서 해양을 통한 국제교류도시로서의 해남의 중심적 위치를 정립했다.

해남에는 백포만 일원의 송지면 근거리 패총과 현산면 읍호리 고분군, 삼산전 일원의 원진리 옹관고분군, 옥천 만의총고분군, 북일면 일원의 북일 고분군 등 지석묘, 고분, 패총 등 이 다수 분포해 있다. 마한 신마국국의 대장국인 신마국이 있었던 해남반도는 마한시기 해양 문화의 요충지이자 중심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2021년 2차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한 백포만 연안의 읍호리 고분군은 약 140만㎡에 이르는 대규모 면적에 110여기의 무덤군이 육안으로 확인되며, 호남 최대 규모의 마한·백제 고분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현재 발굴조사 진행 중인 현산면 읍호리 고분군에 대한 현장답사에 이어 '현산과 백포만의 중요 마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동신대 이정호 교수)를 시작으로 백포만 주요 유적지에 대한 분포상상과 학술

적 가치에 대한 6개의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종합토론(좌장 서울대 권오영 교수)이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마한 신마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사'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목포대 강봉룡 교수)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카다카 칸타 교수의 '5-6세기 해남지역과 왜의 교섭 양상 사례'를 포함한 7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됐다.

해남군과 전남도는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정부의 '역사문화권 정비법'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백포만과 현산 일원의 마한 역사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관련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은 마한역사의 시작과 끝이라 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 지역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위상을 재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마한역사복원 사업 추진으로 마한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고, 마한시대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해남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 '아이사랑플러스' 지원사업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다자녀가구 350세대 대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강진군은 관내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 자체 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을 관내 35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고,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강진군에 주소를

미성년자녀에 해당하는 기준은 2003년 1월 2일생부터 2022년 1월 1일생 까지가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부모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군 담당자가 신청 가정의 다자녀 여부, 실제 관내 거주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 강진 사랑상품권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강진=한태선 기자

## 고상구 장보고한상수상자협의회장 선임

"글로벌 인재양성 앞장"

제2대장보고한상수상자협의회장에 베트남 K&K트레이딩 고상구 회장(64·사진)이 선출됐다.

13일 (사)장보고글로벌재단에 따르면 박중범 초대 회장(오스트리아 영산그룹)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최근 8개국, 14명의 장보고한상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화상회의를 갖고 후임으로 고 회장을 선임했다.

고 회장은 "21세기 장보고로 인증을 받은 장한상 수상자들이 매년 정기 총회와 세계대회 개최 등 모임을 정례화하고 조직을 강화



하겠다"며 "조직 활성화 통해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고 회장은 2002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중형 마트인 K마켓 130개, 푸드 스토리 10개 매장, 브래드 스토리 10개 매장 등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는 등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도=최규욱 기자



영암군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2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영암 왕인문화축제를 비롯해 월출산 국화축제, 마한축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영암군 제공

## 무안, 주민생활밀접시설 긴급정비사업 선정

사업비 5억5천만원 투입

무안군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밀접시설 긴급정비사업에 선정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소교량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생활밀접시설 긴급사업은 소하천이나 도로 등 법정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주거지역과 노후교량, 도로, 제방 등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안전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된 22개 시·군 대상 소규모 공공시설 중앙합동점검 결과 무안군, 순천시, 해남군, 신안군 등 4개 시군이 사업대상 시·군으로 선정됐다.

사업 예정지는 무안을 성동리와 일로읍 지장리 소교량 등 2개소이며,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5,000

만원(특교세 50%, 군비 50%)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산 군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위험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제조사, 상시신고 체계를 구축해 주민제보를 받고 있으므로 주변에 안전 우려가 있는 공공시설물이 있는 경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알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 영암,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 '은상'

영암군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2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는 '축제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축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방신문협

회가 마련한 대한민국 유일의 축제 전문 박람회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참가해 영암권에 전남 축제의 인식을 넓혔다.

올해도 참가해 2년 연속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비롯해 월출산 국화축제, 마한축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영암=최복섭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목포, '건전한 소비!' 물가안정 캠페인

목포시는 최근 목포 복합회센터 일원에서 '착한 가격! 건전한 소비!'라는 구호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목포시 공직자와 전남·목포소비자연맹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5%를 기록하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깨띠와 피켓 등을 메고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관리 등 물가안정 대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 완도 공직자들, 다시마 어가 일손돕기

완도군 공직자들이 다시마 어가 일손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금일읍사무소 직원 등 50여 명이 2회에 걸쳐 금일읍 어가의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더불어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

자 도입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에 총 129명이 입국했으며, 금일읍 다시마 어가에 37명을 배치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공직자 일손 돕기가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순차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여 인력 수급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 목포해경, 연안안전지킴이 직무교육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관내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연안안전지킴이 1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연안안전지킴이의 주요 임무, 연안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초동 조치 능력을 향상시켜 연안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안전지킴이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연안사고 위험구역 6개소에 배치돼 운영 중에 있다. /목포=김동균 기자